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개발 및 타당화\*

최윤희<sup>1)</sup> 문혁준<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어머니들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항을 제작하여 내용타당도와 인지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제작된 예비문항으로 58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으로 71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이용하여 수렴-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공인된 타척도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27문항의 훈육척도를 개발하였고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9문항), 감정적 반응형(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8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훈육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의 특성에 맞는 교육,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유아기, 훈육유형, 척도개발, 타당화

## I. 서론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사회의 문화, 규칙, 약속 등을 습득해야 한다. 한 인간이 태어날 때 그의 세상은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국한되지만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으로,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로 확장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며 이는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개발 및 타당화(2020)」를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강사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et al., 2015).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여 자녀가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가르친다(Baumrind, Larzelere, & Owens, 2010). 인간은 본능대로 행동하는 발달적 특성이 있고 사회의 기준들은 종종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훈육(discipline), 또는 생활지도(guidance)라고 한다(Hurlock, 1978; Wittmer & Honig, 1994).

훈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훈육은 유아기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Binger, 2006). 이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유아는 자신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적이지 않거나 높은 수준의 통제를 사용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은 학대로 발전하기 쉬우며 유아의 내면화, 외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Firmin & Castle, 2008). 유아의 기질에 따라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 내면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유아기에 경험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훈육 환경과 청소년기, 성인기의 폭력성은 정적인 상관이 명확하게 입증되는데 그 이유는 갈등 상황에 대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성인으로부터 학습하였기 때문이다(Swinford, DeMaris, Cernkovich et al., 2000).

반면 지나치게 허용적인 훈육방식은 자녀의 감정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행동의 경계와 결과를 배우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Gunnoe, 2013; Saunders, McFarlane-Piazza, Jacobvitz et al., 2012). 잘못된 훈육으로 인한 위험은 학대와 함께 훈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발생한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훈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훈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김연아, 2011) 가정 내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유아교육 기관이나 학교에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훈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이 집단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다. 제대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지나치게 허용적인 훈육에 대한 결과로 유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강압적인 훈육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aunders, McFarlane-Piazza, Jacobvitz et al., 2012). 그러므로 Baumrind, Larzelere와 Owens(2010)은 부모의 애정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는 일정 수준의 통제와 관리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으며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하여 적절한 훈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학대, 방임, 훈육에 대한 포기 등으로 나타나는 딜레마는 훈육의 개념이나 목적, 가치 등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훈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Firmin과 Castle(2008)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훈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했던 시대, 중세 기독교의 영향으로 원죄와 성악설의 철학이 팽배하였던 시대에는 아동을 체벌과 엄격한 수련을 통해 교화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체벌과 수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훈육을 아동이 잘못했을 때 사용하는 벌칙이나 처벌과 동일한 의미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훈육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훈육은 개념 정의와 지도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Firmin & Castle, 2008; Straus & Fauchier, 2007).

그러나 훈육을 영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라고 정의한 Marion(2010)의 정의와 훈육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도덕적인 행동과 개념을 아동에게 가르쳐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습과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Hurlock(1978)의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훈육 자체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임을 알 수 있다. 훈육은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훈육의 목표가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et al., 2015). 발달 초기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성인에 의한 외적 통제가 주어지지만 차츰 타인의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유아 스스로 행동 조절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여 자신의 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결국 훈육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내적 훈육(internal discipline)과 자기훈육(self-discipline)의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자기통제(self-control)를 익히고 성공적인 사회적응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성인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교육사조가 변화되었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으로 훈육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김선훈, 2006;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권리나 안전이 위협을 받고 훈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사나 부모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훈육이 과연 이렇게 부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훈육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인식은 어떠하며, 그 인식을 표현하는 훈육의 방식은 어떠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훈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훈육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민족성은 자녀양육 방식에 있어 중요한 가족 생태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민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 내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 인디언 원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Hildebrand, Phenice, Gray et al., 2000)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서구권과는 달리 아동이 성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면화된 자기조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애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Chao, 1994; Wu, Roinson, Yang et al., 2002).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훈육방식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Gunnoe, 2013). 그러므로 훈육방식을 측정하는 척도도 대상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유아기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Straus와 Fauchier(2007)가 개발하고 정혜린(2013)이 변안한 DDI(The Dimensions of Discipline Inventory)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함께 측정하며, Frick(1991)이 개발하고 강선아와 권오식(2014)이 변안한 APQ(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는 학령기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도구이다. Robinson, Mandlco, Olsen과 동료(1995)가 제작한 것을 Calzada와 Eyberg(2002)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를 김명희(2011)가 변안한 PSD(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는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아기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발달단계 중 유아기는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회적 약속과 관계의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부정적 자아인식과 성공적인 사회화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 시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전략은 자녀의 자기 이해, 타인 이해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유능성, 사회 적응성을 높인다(한경원·신혜원, 200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훈육을 자녀에게 사회의 규칙과 약속, 습관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훈육방식을 알아보고 이를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의 척도로 우리의 방식을 점검하던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들이 훈육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의 자기통제와 자기조절, 사회화 과정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 개발과 타당화를 위하여 탐색적 혼합연구설계(exploratory mixed methods design)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면접이나 관찰 등의 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개념이나 잠재적 가설, 요인 등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양적연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양성은, 2006; Krueger & Casey, 2009).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어머니들의 훈육경험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로 문항을 제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정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1. 연구대상

####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본 연구를 위하여 탐색적 혼합연구설계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가 외국의 척도가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훈육방식을 듣고자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Morgan, 1997; Morgan & Krueger, 1998) 참여자의 사회적 배경이나 생활양식, 소득 수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자녀 발달 수준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3, 4세 자녀의 어머니와 5세 자녀의 어머니 그룹을 분할하였다. 인터뷰는 4~6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 인원은 20명이었다. 참여

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번호	그룹	참여자 연령	자녀 연령	자녀 성별	자녀 수	경제적 수준정도	기타
1	A	38	5	여	1	중	파트타임 취업
2		35	5	여	1	중상	프리랜서
3		39	5	남	2	중상	휴직
4		42	5	여	2	중상	
5		35	5	여	1	중	
6	B	38	5	남	1	중	
7		33	4	남	2	중	파트타임 취업
8		36	4	여	2	중	파트타임 취업
9		35	4	남	1	중	주말부부
10		37	4	여	1	중	
11	C	36	4	남	1	중	파트타임 취업 주말부부
12		42	4	남	1	중	휴직
13		43	3	남	3	상	
14		36	4	남	2	중	
15		38	3	여	2	중	
16	D	32	5	여	1	중	
17		47	5	여	1	중상	전일제 취업
18		37	5	여	1	중	
19		39	5	여	2	중	
20		43	5	남	1	중	

#### 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5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예비조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58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동 특성	성별	남	282(49.0)	가정 특성	일반가정	542(93.1)
		여	297(51.0)		다문화가정	12(2.1)
	연령	3세	66(11.3)		한부모가정	10(1.7)
		4세	149(25.6)		조손가정	1(0.2)
		5세	367(83.1)		주말부부	16(2.7)
어머니 특성	연령	20대	9(1.5)		기타	1(0.2)
		30대	336(57.6)	조부모	동거	59(10.1)
		40대	223(38.5)	동거여부	비동거	523(89.9)
	학력	무응답	14(2.4)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	상	16(2.7)
		고졸	55(9.5)		중상	147(25.3)
		초대졸/대졸	429(73.8)		중	338(58.1)
		대학원졸	70(12.0)		중하	75(12.9)
	무응답	28(4.8)	하		6(1.0)	
	취업 형태	전업주부	236(40.5)	자녀 수	1명	151(25.9)
		종일제 취업	248(42.6)		2명	365(62.7)
반일제 취업		82(14.1)	3명		63(10.8)	
무응답		16(2.7)	4명		3(0.5)	

#### 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본조사는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수도권에 거주하며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표 3〉 본조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71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동 특성	성별	남	356(50.0)	가정 특성	가정 형태	일반가정	663(93.1)
		여	356(50.0)			다문화가정	17(2.4)
	연령	3세	77(10.8)			한부모가정	11(1.5)
		4세	193(27.1)			조손가정	1(0.1)
		5세	441(62.0)			주말부부	19(2.7)
			기타			1(0.1)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어머니 특성	연령	20대	13(1.8)	가정 특성	조부모 동거	77(10.8)	
		30대	417(58.6)		동거여부 비동거	635(89.2)	
		40대	265(37.2)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	상	21(2.9)
	학력	무응답	17(2.4)			중상	176(24.7)
		고졸	72(10.1)			중	427(60.0)
		초대졸/대졸	533(74.8)		중하	82(11.5)	
	취업 형태	대학원졸	76(10.7)	자녀 수	하	6(0.8)	
		무응답	31(4.4)		1명	180(25.3)	
		전업주부	292(41.0)		2명	456(64.0)	
		종일제 취업	319(44.8)		3명	73(10.3)	
		반일제 취업	87(12.2)		4명	3(0.4)	
		무응답	14(2.0)				

## 2. 연구절차

###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9년 4월과 5월,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그룹에 따라 1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보조연구자와 그날의 주된 인터뷰 내용, 참가 어머니들의 특성, 모임 준비와 진행에 대한 사후검토회의(debriefing)를 통해 다음 인터뷰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점검하였다.

### 나. 문항개발과 내용타당도, 인지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Schwartz(1978)의 경험적 접근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어머니들의 경험적 자료를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인터뷰 참여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경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등의 질문을 하였고 어머니들의 응답은 훈육 방식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문항들은 Baumrind(1971)의 부모 양육행동 유형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훈육의 유형을 ‘권위주의적인, 권위가 있는, 허용적인’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30문항, 총 90개의 문항을 아동학 전공 교수 5인과 아동학 전공 박사 6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박사 6인 중 2인은 척도개발 경험자로 구성하였다. Waltz와 Bausell(1981)의 기준대로 CVI가 .75를

초과하는 문항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되 한사람의 평가만 유독 낮은 경우, 전문가가 점수를 낮게 책정한 이유를 검토하여 문항을 수정한 경우,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경우는 남겨두어 요인분석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61문항으로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0인을 선정하여 인지타당도(cognitive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문항 제작 과정에 대한 예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문항 제작의 예

어머니들의 응답	문항 제작	Baumrind의 구분
아이의 상황을 한 번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애가 그럴만한 상황일 때는 저도 존중을 해줘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한다.	권위가 있는
그런데 제가 힘들거나 애가 같은 잘못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	권위주의적인
저는 안보려고 해요.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그냥 안보고 터치 안하고...그게 속 편해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넘어가는 편이다.	허용적인

#### 다.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검증 과정, 인지타당도 검증 과정(pilot-test)을 통해 확정된 61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여 2019년 6~7월, 793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595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582부가 문항양호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31문항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 라.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훈육유형 척도가 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어머니들의 훈육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의 적용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첫째, 개발된 척도가 구성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결과를 통

해 교차타당도의 증거를 수집하였다. 둘째, 이미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준거로 하여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8월, 수도권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 중 분석에 문제가 없는 71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도구는 현재 훈육유형 측정을 위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SD(Parenting Style and Dimension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Robinson, Mandlco, Olsen과 동료(1995)가 제작한 것을 Calzada와 Eyberg(2002)가 수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고, 이를 김명희(2011)가 번안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논리적 설명(예: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한다), 강압(예: 아이에게 엄격하고 확고한 규칙을 세운다), 방임(예: 아이가 떼를 쓰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15문항의 검사 도구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논리적 설명이 .82, 강압이 .79, 방임이 .75이다. 4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훈육방식을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

####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녹음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해서 읽으며 훈육방식의 유형을 여러 색의 펜으로 구분하였고 이후 유형별로 다시 정리하여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인터뷰 참가 어머니의 경험과 분류된 훈육유형이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 나.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개발된 총 61문항에 대하여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이 공통요인구조를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측정변

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자료축소' 목적으로 시행되는 요인분석의 경우에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므로(탁진국, 1996)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교회전방식 중 프로맥스를 실시하였다.

#### 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작된 척도에 대해 내적합치도 검증을 하여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가. 문항 제작과 내용타당도, 인지타당도 검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훈육방식 문항을 제작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권위가 있는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한 Baumrind(1971)의 연구를 토대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예비척도 문항은 각 하위요인별로 30개씩 총 90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훈육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CVI 지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CVI 지수가 높더라도 훈육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신념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예: 아이의 행동에는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중복되는 5문항과 둘 이상의 내용을 구인하는 중의적 4문항(예: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훈육은 강하고 짧게 하는 것이 좋다)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훈육상황이라고 보기에 모호한 6문항(예: 내 화풀이를 아이에게 한 적이 있다 등)을 삭제하였고 복잡했던 문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였으며(예: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아이의 말이 일리가 있으면 행동보다 동기를 보려고 노력한다 →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한다), 문항 수정(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주기로 했던 것을 취소한다 →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주기

로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과 단어 수정(좋고 나쁜 → 옳고 그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9문항이 삭제되어 총 61문항이 예비조사에 사용되었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확정된 61개의 예비 문항으로 인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음과 문항에 답하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15~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가. 문항분석 결과

개발된 총 61문항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 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분석을 위한 과정은 첫째, 왜도 절대값 3 이상, 첨도 절대값 10 이상을 나타내는 문항은 삭제의 기준으로 삼았다(문수백, 2012). 둘째,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30 이하의 상관을 나타내는 문항을 삭제의 기준으로 삼았다. 셋째, 검사 문항의 내적합치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확인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왜도와 첨도가 모두 허용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상관계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문항을 삭제하였다. 요인 1의 Cronbach's  $\alpha$  값은 .87, 요인 2의 Cronbach's  $\alpha$  값은 .87, 요인 3의 Cronbach's  $\alpha$  값은 .83으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문항은 59문항으로 결정되었다.

### 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분석을 통해 선정된 5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MO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KMO 값은 .8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 < .001$ 로 요인분석을 위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문항 제작 과정에서 Baumrind(1971)의 이론을 개념적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므로 요인을 3개로 지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높고 다른 개념과의 관련이 높지 않은 문항들을 채택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충족하였다.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의 문항을 채택하였으며(김계수, 2011) 공통성( $h^2$ )이 기준(0.3)을 충족하

지 못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은 문항은 요인 1이 12문항, 요인 2가 10문항, 요인 3이 9문항으로 총 31문항이 본조사를 위한 척도로 확정되었다. 요인구조의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2.04%를 설명하였고 고유가는 6.61, 요인 2는 10.66%의 설명변량과 3.20의 고유가를 나타내었다. 요인 3은 8.14%의 설명변량과 2.44의 고유가가 나타났다. 이들 3개의 요인은 훈육 전체 변량의 총 40.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문항들을 다시 요인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1은 규칙을 설명하고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며 한계를 설정해주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이 요인을 ‘합리적 반응형(rational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모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화를 내고 자녀를 비난하며 때리기도 하는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를 ‘감정적 반응형(emotional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부모가 기준이 없어 자녀의 요구에 흔들리며 훈육을 포기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과대 허용적 반응형(overly permissive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표 5> 부모의 훈육유형 요인구조와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적재량			$h^2$
		1	2	3	
44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84	-.162	-.356	.474
60	아이에게 혼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676	-.226	-.375	.471
59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638	-.074	-.309	.417
7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623	-.094	-.353	.404
1	아이의 고쳐야 할 행동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한다	.614	-.070	-.375	.405
2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한다	.617	-.047	-.346	.405
35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한다	.600	-.145	-.221	.361
10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95	-.283	-.172	.387
20	아이의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한다	.582	-.091	-.135	.353
55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훈육을 한 후에는 아이의 변화를 지켜본다	.566	-.101	-.211	.321
41	아이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554	-.224	-.132	.331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적재량			$h^2$
		1	2	3	
52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다	.508	-.294	-.124	.306
8	아이에게 '저리 가, 귀찮아' 라는 말을 한다	-.175	.686	.189	.472
27	아이에게 화가 나서 바보같이, 멍청이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202	.679	.175	.463
30	아이에게 '너 때문에....'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147	.647	.076	.425
61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	-.142	.643	.099	.416
14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라고 겁을 준다	-.114	.631	.008	.418
26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더 혼내게 된다	-.099	.615	.209	.389
48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아이에게 겁을 준다.	-.186	.608	.134	.373
45	아이를 훈육하다가 화가 나서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린 적이 있다	-.206	.571	.274	.348
5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	-.148	.550	.265	.324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 엉덩이, 팔 등을 때린 적이 있다	-.137	.549	.252	.321
2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넘어가는 편이다	-.314	.111	.715	.515
17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징징거리면 쳐주게 된다	-.317	.188	.684	.470
42	아이에게 '안돼'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잔소리하기 싫어서 못본 척 한다	-.239	.104	.683	.470
33	아이가 떼를 쓰면 그냥 넘어간다	-.253	.248	.664	.453
36	아이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신경쓰지 않는다	-.266	.098	.626	.394
29	말로 타일러도 안되면 내버려둔다	-.281	.142	.618	.383
9	아이에게 상처주기 싫어서 잘못된 행동도 눈 감아준다	-.284	.133	.613	.377
47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민망해서라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237	.242	.608	.382
38	아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만다	-.208	.235	.555	.322
	고유값	6.61	3.20	2.44	
	설명변량	22.04	10.66	8.14	
	누적변량	22.04	32.70	40.84	

## 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본조사용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반분신뢰도와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내적합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반분법(split-half method) 중 기우반분법을 사용하여 짝수와 홀수 문항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도출되는 상관계수를 Spearman-Brown의 예측공식을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 반응형은 .80, 감정적 반응형은 .83,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82의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Cronbach's  $\alpha$  값에 의한 내적 합치도는 .84, .82, .82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 3.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결과

### 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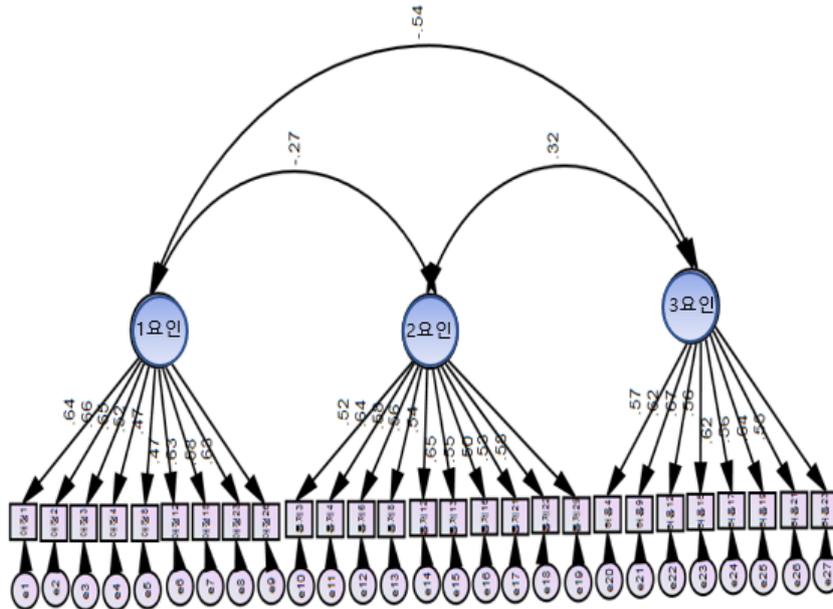
합리적 반응형 12, 감정적 반응형 10, 과대허용적 반응형 9의 총 31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I, TLI, SRMR, RMSEA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CFI(.893)와 TLI(.885)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높였다(삭제된 문항의 예: 아이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다 등). 요인부하량이 .46, .47로 낮은 4문항을 삭제한 후의 모델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CFI와 TLI 모두 좋은 모델 적합도로써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RMSEA 또한 .043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발된 훈육유형 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어 개발된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6>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 3요인의 모델적합도 지수

적합지수	$\chi^2$	df	p	CFI	TLI	SRMR	RMSEA
수용수준	-	-		≥.90	≥.90	≤.05	≤.08
결과	875.25	374	.000	.917	.909	.05	.043

각 하위요인별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하위요인 간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1$ ) 나타났다. 각 요인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

인인 합리적 반응형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7~.66으로 경로계수가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인 감정적 반응형은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로계수가 .50~.65, 세 번째 요인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로계수가 .55~.67로 나타났다.



[그림 1] 훈육유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모형

#### 나. 수렴-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확정된 척도의 같은 구인으로 수렴되는 문항들이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렴타당도, 다른 구인으로 묶인 문항들이 서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통해 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이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는 개념 신뢰도가 각각 .938, .911, .928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을 충족하였으며 분산추출지수도 .632, .508, .617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분산추출지수가 각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 $r^2$ )보다 크므로 요인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표 7〉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합리적 반응형	.63*		
감정적 반응형	-.24(.06**)	.51*	
과대허용적 반응형	-.46(.21**)	.27(.07**)	.62*

\* = 분산추출지수    \*\* = () 안은 결정계수

#### 다.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

제작된 척도와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와의 상관을 검토함으로써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보는 공인타당도를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작된 척도의 하위요인은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인 PSD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합리적 반응형과 논리적 설명은  $r=.72(p<.001)$ 로 나타났고 감정적 반응형과 강압은  $r=.70(p<.001)$ 의 상관을 보였다. 과대허용적 반응형과 방임 역시  $r=.71(p<.001)$ 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훈육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PSD와 제작된 훈육유형 척도가 유사한 응답 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작된 척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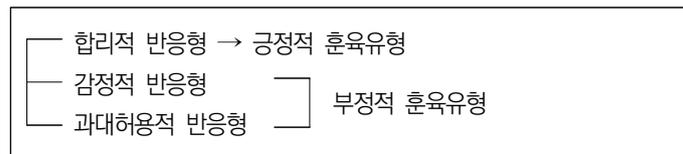
(N=712)

	1	2	3	4	5	6	M	SD
1. 합리적 반응형	1						3.23	.36
부모훈육 유형척도								
2. 감정적 반응형	-.23***	1					2.04	.44
3. 과대허용적 반응형	-.44***	.27***	1				1.55	.39
PSD								
4. 논리적 설명	.72***	-.24***	-.35***	1			3.35	.39
5. 강압	-.23***	.70***	.17***	-.26***	1		1.94	.44
6. 방임	-.44***	.36***	.71***	-.40***	.36***	1	1.51	.40

\*\*\*  $p<.001$ .

이상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척도의 구성에 대한 검증, 일반화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유아기 자녀를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 27문항을 확정하였다. 합

리적 반응형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발달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훈육방식이며 자녀에 대한 존중, 설명, 모델링, 귀납적 추론 방식의 지도가 포함된다. 감정적 반응형은 문제행동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응하며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수치심을 주거나 자녀의 행동 수정을 위하여 협박, 벌이나 체벌 등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자녀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의 권위와 양육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성격 특성, 비밀관성 등의 양육행동 특성으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 스스로는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개발된 훈육척도의 하위요인 구성은 <그림 2>에 제시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합리적 반응형이 .82, 감정적 반응형이 .82, 과대허용적 반응형이 .81로 나타났다.



[그림 2] 개발된 훈육유형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아가 발달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확장해가는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매일 경험하는 훈육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훈육의 목적과 바른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훈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현 상태의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 도구들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거나, 유아기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훈육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아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며 유아 스스로 내면화된 규칙을 사용하여 자기훈육과 자기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에 따라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훈육의 하위요인의 성격을 Baumrind(1971)의 권위가 있는 훈육, 권위주의적인 훈육, 허용적인 훈육으로 설정하였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훈육 경험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1요인 18문항, 2요인 21문항, 3요인 22문항의 총 61개의 예비문항이 확정되었다.

둘째, 구성된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한 3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고 각 하위요인을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총 31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하위요인 중 합리적 훈육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중 상위문항들을 살펴보면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것,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지도하는 귀납적 훈육방식이 규칙을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며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의 자녀 존중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SD, APQ, DDI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작된 척도가 한국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ao(1994), Wu, Robinson, Yang과 동료들(2002)은 동양의 부모들에게서는 애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통제적이라는 것은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 감정적 훈육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중 어머니의 감정 조절이나 언어적 공격에 관한 부분이 감정적 훈육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훈육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체벌하거나 벌을 주지는 않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어머니 개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을 자녀의 훈육 상황에서 강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정적 훈육이란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훈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그 외의 부정적인 훈육, 예를 들어 비난하거나 언어적 공격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훈육의 역기능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최선녀·문영경, 2016)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 과대허용적 훈육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은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 기준 없는 존중 등의 문항들이 있었지만 상위에 위치하는 문항들은 '훈육을 포기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자녀가 떼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쉽게

훈육을 포기하여 자녀에게 잘못된 경험을 학습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훈육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부모의 훈육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한계를 부모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조절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Feldman & Klein, 2003; Vazsonyi & Huang, 2010).

셋째, 본조사에서는 표집을 달리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타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7문항의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척도의 모델 적합도 지수와 상관 지수가 양호하게 산출되어 구성타당도와 교차타당도, 공인타당도가 확인되었고 개발된 척도의 일반화와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었다.

타당화 검증 과정에서 합리적 훈육은 감정적 훈육과 과대허용적 훈육과의 관계에서 강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감정적 훈육과 과대허용적 훈육은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훈육과 부정적인 훈육의 범주에서 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대허용적 훈육은 감정적 훈육처럼 강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대허용적 훈육은 바람직하지 않은 훈육으로 감정적 훈육과 같은 범주에 묶이며 자녀에게 미치는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녀가 감정조절, 대인관계의 기술, 행동의 경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배우지 못하는 등의 사회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Gunnoe, 2013; Saunders, McFarlane-Piazza, Jacobvitz et al., 2012). 훈육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거나 아예 훈육을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적 훈육과 과대허용적 훈육의 출발은 같으며 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훈육은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삶의 태도와 방식, 사회의 규범과 문화 등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한계를 설정하되 자녀를 존중하는 훈육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훈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성인 중심의 권위적 훈육 방식이 훈육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훈육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자녀를 잘 가르쳐 건강한 시

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인이 개입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Field & Field, 2006). 통제에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Baumrind(2012)의 연구, 온화하고 수용적이지만 한계설정이 명확한 부모의 훈육 스타일이 자녀의 자기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Feldman과 Klein(2003)의 연구, Vazsonyi와 Huang(2010)의 연구 또한 부모의 역할과 훈육의 정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생애 초기 성인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문제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근거한 훈육의 방식이지 훈육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훈육을 한다는 미명 하에 학대를 한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을 통해 훈육 및 학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원내 방문교육, 예비부모를 위한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사용에 훈육 방법 교육 등의 부모교육이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의 훈육방식은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 반복되면서 심지어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부정적인 훈육방식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부정적 훈육방식을 줄이기 위해 예측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도의 요인부하량, 요인에 대한 설명 변량 등 통계적 값이 높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으나 정의적 특성을 갖는 척도는 수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으며 어머니들의 실질적 경험에서 나온 문항, 이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하였다는 점은 본 도구가 갖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대상의 연령을 3~5세로 한정하여 발달상 변화가 많은 유아들의 연령적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다각적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개발된 척도의 내용적 적합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척도는 자주 사용하는 훈육 방법을 통해 자신의 훈육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이며 여러 유형이 동시에 비슷한 점수로 나타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훈육 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신의 훈육 방식을 반성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훈육 방식을 지원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지원하여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선아·권오식(2014).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인간발달중재학회지*, 5(3), 49-63.
- 김계수(2011). *조사연구방법론*.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명희(201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효능감, 훈육방식과 유아의 적응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선혜(2006). '훈육'의 교육적 의미의 재해석. *열린교육연구*, 14(2), 123-138.
- 김연아(2011). 보육교사의 훈육유형에 따른 교사 효능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수백(2012).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18). “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 7월 5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서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성은(2006). 가족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에 대한 고찰.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9), 1-8.
- 정혜린(2013). 3,4,5세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선녀·문영경(2016).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7, 125-156.
- 탁진국(1996). *심리검사법*. 서울: 학지사.
- 한경원·신혜원(2009).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아의 성, 연령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5), 137-153.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 Baumrind, D. (2012). Differentiating between confrontive and coercive kinds of parental power-assertive disciplinary practices. *Human Development*, 55(2), 35-51.
- Baumrind, D., Larzelere, R. E., & Owens, E. B. (2010). Effects of preschool parents' 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3), 157-201.
- Binger, J. J. (2006). *Parent-child relations(7th ed)*. NJ: Pearson Education, Inc.

- Cal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 Feldman, R., & Klein, P. S. (2003).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and fathers: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680-692.
- Fields, M. V., & Fields, D. (2006). *Constructive guidance and disciplin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Firmin, M. W., & Castle, S. L. (2008). Early childhood disciplin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7*(1), 107-129.
- Frick, P. J. (1991). *The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 Unpublished rating scale*.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 Gunnoe, M. L.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physical discipline,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reports. *Psychological Reports: Disability & Trauma, 112*(3), 933-975.
- Hildebrand, V., Phenice, L. A., Gray, M. M., & Hines, R. P. (2000). *Knowing and serving diverse familie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15).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제6판).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공역). 파주: 교문사. (원서출판 2009).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rion, M. (2010). *Guidance of young children (8th ed.)*. NJ: Merrill Prentice-Hall.
- Morgan, D. L. (1996).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Focus group kit*. Thousand Oaks, CA: SAGE.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Saunders, R., McFarlane-Piazza, L., Jacobvitz, D., Huzen-Swann, N., & Burton, R. (2012). Maternal knowledge and behaviors regarding discipline: The effectiveness of a hands-on education program in positive guida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3), 322-334.
- Schwartz, S. A. (1978). A comprehensive system for item analysis in psychological scale co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15*(2), 117-123.
- Straus, M. A., & Fauchier, A. (2007). *Manual for the dimensions of discipline inventory (DDI)*. Durham, NH: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Swinford, S. P., DeMaris, A.,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2000). Harsh physical discipline in childhood and violence in later romantic involvement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508-519.
- Vazsonyi, A. T., & Huang, L. (2010). Where self-control comes from: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deviance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245-257.
- Waltz, C., & Bausell, R. B. (1981). *Nursing research: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Philadelphia, PA: F. A. Davis.
- Wittmer, D. S., & Honig, A. S. (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 Wu, P., Robinson, C. C., Yang, C., Hart, C. H., Olsen, S. F., Porter, C. L., Jin, S., Wo, J., & Wu, X. (200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of preschoole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6), 481-491.

- 논문접수 8월 10일 / 수정본 접수 9월 1일 / 게재 승인 9월 16일
- 교신저자: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mhyukj@catholic.ac.kr

## Abstrac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s' Discipline Style Scale for Young Children

Yunhee Choi and Hyukjun Moo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parents' discipline style scale for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the empirical data of moth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and based on this, items were developed to verify the content and cognitive valid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82 mothers with preliminary item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on 712 mothers with modified item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verifi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27 items were developed and the sub-factors were named rational response type(9 items), emotional response type(10 items), and overly permissive response type(8 items).

Keywords: young children, validation, discipline, scale development

